

# 담양 대나무 부채 무더위에 반짝인기

## 제작 주문 평년보다 50% 늘어 죽부인·대자리는 중국산 점유



김대석 부채장이 담양을 만성리 작업장에서 대나무 부채를 만들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전력수급 위기로 '대나무의 고향' 담양 대표적 인 죽제품인 '대나무 부채' 주문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담양지역에서 대나무 부채를 만들고 있는 이는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48호 선자장(扇子匠)과 제48-1호 집선(摺扇匠)인 김대석(64) 부채장이 유일하다. 김씨는 "매년 한여름에 1000여개의 대나무 부채 주문을 받았으나 올해는 폭염 덕분에 1500여개로 50% 늘었다"고 밝혔다. 부채 가격은 5000~1만5000원선. 김씨는 1년에 7000여개의 대나무 부채를 제작한다. 한때 관광전반 죽물시장이 열릴 정도로 담양 죽제품은 수요가 많았지만 현재는 중국산 저가 죽제품에 밀려 판매가 위축되고 있다. 여름나기용인 죽부인·대자리 등 죽제품 대부분을 중국산 죽제품이 점유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담양지역 죽제품 시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만성리 자택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전통 방식대로 수작업으로 대나무 부채를 만들고 있다. 김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유산을 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 주 주말을 이용해 죽향 문화체험마을에서 부채제작 무료 시연회와 부채 만들기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더울 때는 대나무 부채가 최고"라면서 "전기도 필요 없고 자연 바람이나 건강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값싼 중국산 대나무 부채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부채 등에 밀려 국산 대나무의 수요가 옛날 죽공예가 활황일 때 비하면 아주 적지만 그래도 전통 부채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아봐주고 찾아주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rg@



백련사 백일홍 절경 지난 8일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백련사 만경루 앞 배롱나무가 꽃망울을 활짝 터트렸다. 배롱나무는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백일홍 나무로도 불린다. <강진군 제공>

## 장성군 통합 관제시스템 지역민안전 지킴이 '톡톡'

전국 최초로 구축한 장성군 통합 관제시스템이 24시간 빈틈없는 모니터링으로 지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2월 방범, 어린이 보호구역, 재해예방, 산불감시, 학교내 안전 등 목적별로 분산 운영되던 270대의 CCTV를 통합한 관제센터와 재난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군이 하천 재난, 산불 감시 등을 위해 관리하던 CCTV 21대와 경찰서가 방범용으로 쓰던 101대, 초·중·고교의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용 148대를 한 곳으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장성대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목격, 통합관제센터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

명을 구할 수 있었다. 또 4월에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이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충격 후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 사고차량의 번호를 확인 후 읍내 파출소에 즉시 알려 뺑소니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군은 통합 관제센터 개소후 방범용 CCTV 19대를 설치해 현재까지 총 289개의 CCTV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범죄취약지역에 약 2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은 CCTV 통합 관제센터가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지 주민들에게 알리고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통합 관제센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나주시 진학교사 초청 학부모 아카데미 강좌

나주시는 진학 전문 교사와 각 분야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총 3회에 걸쳐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강좌'를 실시한다. 나주시는 변화하는 입시제도와 자녀교육에 소신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강좌'를 동신대 학생회관에서 지난 6월에 이어 11일, 17일 갖는다. 이번 강좌는 주로 학교 현장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육 전문가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서부터 내신관리, 진학과 진로 등을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진행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많은 도움과 학부모 스스로 되돌아보고, 아이와 소통하며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 "연꽃 구름 위를 걸어요"

### 농촌체험마을을 담양 시목 구름다리 조성 인기

'녹색 농촌체험마을'인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시목마을에 이색적인 구름다리가 조성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담양군 대덕면(변장 열성철)은 지난 6월부터 추진한 '2012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덕면 시목마을에 있는 연꽃연못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생태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구름다리와 편의시설 설치를 완

공했다. 이번에 완공된 구름다리는 단순히 연못가를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 연못을 가로지르도록 설계, 연꽃을 비롯한 각종 수생식물과 개구리, 소금쟁이 등 다양한 생물종들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 주변에 물레방아를 설치해 활짝 핀 연꽃과 물레방아를 한 영글에 담을 수 있는 포토 포인트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선 시목마을 사무장은 "앞으로도 체험장 주변에 식물터널을 만들어 주민과 체험객들에게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목마을은 지난 2004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돼 담양군의 지

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태둠벙과 연꽃연못을 조성했다. 또한 모내기체험을 비롯해 미꾸라지 잡기, 단감 따기 등 계절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rg@

# 전 북

## 내장산 단풍맞이 가을축제 거리 퍼레이드 참가하세요

20명 이상 팀 참가자 모집  
점음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내장산 단풍맞이 가을축제' 프로그램 중 야외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며, 시 산하 기관단체·기업체·도내 동호회 및 단체 등 축제를 즐기고 참여할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구성인원이 20명 이상인 팀이어야 한다. 참가 신청서는 점음사 문화재

홈페이지(www.jchf.or.kr)나 점음시청(www.jeongeup.go.kr)을 통해 내려받으면 된다. 지난해 거리 퍼레이드에는 군 악대와 가마대를 선두로 백제 의상단, 뽀리 댄스단, 자전거 부대 등 8개 기관단체와 23개 읍·면·동민이 참여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2012 내장산 단풍맞이 가을축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부안 해양스포츠제전 오늘 개막

### 4일간 요트·핀수영·카누 등 8개 종목 경연

'제7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부안 격포항과 격포, 고사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제전은 요트, 비치발리볼, 핀수영,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5개 정식종목과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등 3개 번외종목으로 치러진다. 첫날인 10일 오후 7시 격포항 특설 무대에서 성대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개회식은 전국 해양스포츠인과 관

람객들이 카운트 다운을 외치는 합성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로부터 빛을 부르는 식전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된다. 이어 개회선언과 동시에 대회기, 시·도기, 경기 단례기가 차례로 입장, 게양되며 선수 및 심판대표가 공정한 대회운영을 다짐하는 선서를 한다. 또한 해양스포츠 제전의 다양한 마크와 별을 형성화한 축하 레이저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북경찰 '신호겸용 비보호 좌회전' 도입

전북 지방경찰청은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겸용 비보호 좌회전(PPLT)' 신호체계를 도입한다. '신호겸용 비보호 좌회전'은 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혼합한

신호체계로 출·퇴근 시간과 주·야간시간의 좌회전 신호 길이를 유동적으로 조절해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무더위속 대파밭 매는 아낙들 가마솥더위가 계속된 지난 8일 무주군 무주읍 유숙마을 주민들이 대파밭에서 집초를 뽑고 있다. /연행뉴스

## 김제시 시도대항 탁구대회 고창서 고인돌배 유도대회

### 1200명·1800명 참가... 잇단 전국규모 체육대회

김제시와 고창군에서 굿직한 전국규모 탁구와 유도대회가 개최된다. <김제,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탁구대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제28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탁구대회'가 열린다.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대학·일반부 각각(남·녀)의 개인단식과 개인복식,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군산 중앙초, 대야초, 이일여중, 이일여고, 군산 기계공

고, 전북대, K&G 인삼공사 등 전국에서 총 104개팀 임원·선수 1200여명이 참가한다. 김제시와 김제시 통합체육회(회장 이근식)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김제를 찾는 선수단을 맞이해 '지평선의 고장' 김제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는 대회로 만들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이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 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 개최>는 11~12일 이틀간 고창

군립 체육관에서 '2012 고창 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 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유도회와 고창군이 주최하고, 전북유도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관내 유도인구의 자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 유아, 초·중·고교 및 대학생, 일반 생활체육 유도선수와 임원 등 총 1800여명이 참가해 남녀 개인전, 단체전 및 분 경연대회로 나눠 매트 위에서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또 대회 이틀 전인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1급 심판 및 지도자의 자격 취득 강습회가 열려 대회 전야제 성격 을 띠면서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홍순선기자 knews@

## 단 신

### 군산시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

군산시는 전북도, 한국전지 재활용협회와 함께 1단계 초·중학교 대상(6~8월), 2단계 공동주택(아파트) 200세대 이상(9~10월) 대상으로 가정 등에 방치된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을 추진한다. 수집한 폐건전지는 학교별, 공동주택별로 계량해 수거 실적이

우수한 학교 및 공동주택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 교사에게는 표창도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폐건전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폐건전지에 대한 이해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희기자 nogusu@

### 김제시 교월동 무더위 쉼터 10곳 지정

김제시 교월동(동장 양운엽)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성암복지원 등 10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다. 또한 독거노인 관리사들은 담당구역을 나눠 독거노인들에게 안부전화를 걸고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김제시 관계자는 "폭염피해가 대부분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 남원시 새 인터넷 홈페이지 13일 첫 선

남원시가 인터넷 홈페이지(www.namwon.go.kr)를 오는 13일 새롭게 선보인다. 시는 그동안 과다한 정보로 복잡하게 구성된 시작 페이지를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로만 간결하게 구성했다. 메뉴도 원하는 정보를 한눈

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분류했다. 중국 관광객을 위해 중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 밖에 별도도 가입해야 했던 불련함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수산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 사무실 개소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회장 임순호)는 지난 7일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임대한 사무실은 건평 60㎡(20평)의 경량철골조 건물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성기 정읍시장, 정도진 정읍시의원, 관계 공무원

과 유관단체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 관계자는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장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